

한국어와 영어 성별어 비교연구: 공손표현과 관련하여

김현효*

¹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n and English Genderlect: Focused on Polite Expressions

Hyun Hyo Kim^{*}

¹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College of Social Science & Humanities,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한국어와 영어 성별어(genderlect)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성별어란 성(gender)의 차이가 언어에 반영된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언어가 남성의 언어와 다르며, 이러한 차이가 성차별의 원인이나 증거가 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성별어 중 여성발화의 특성을 영어와 한국어의 영화와 드라마 대사를 분석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영어자료에서는 여성어가 주로 어휘 즉, 명사, 형용사, 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나타났으나, 한국어 자료에서는 어휘 뿐 아니라 한국어 경어법의 최고단계인 ‘합쇼체’와 관련하여 여성이 익숙치 않다는 특성이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공손발화에서는 영어나 한국어 모두 여성발화가 공손표현의 특징과 유사한데, 한국 여성들은 경어법에서 아주높임 단계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와 영어의 성별어의 특징이 공손표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국 여성들의 경우에는 공손어법 중 경어법의 최고 단계인 ‘합쇼체’보다는 ‘해쇼체’를 선호하는 부분을 주목하였다. 이는 성별어의 세계 보편적인 특성과 개별 문화의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 하겠다.

Abstract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linguistic communication style. Genderlect is a socio-linguistic term to refer to the linguistic differences spoken by specific gender. Some linguistic features are provided as evidence to show the genderlects: pitch, lexicon, intonation, grammar and sty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characteristics of genderlect in English and Korean. To do so, I analyzed the scripts of an English movie, ‘Mrs. Doubtfire’ and Korean tv drama, ‘Oohlala couple’. In “Mrs. Doubtfire, tension and laughter arose out of discrepancy from the way he looked (as a woman) and the way he spoke (like a man). The same is true with “Oohlala couple.” In the language of Mrs. Doubtfire, male speech characteristics with nouns were salient while in “Oohlala couple” with verb forms, especially with honorific style, which shows a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genderlect. Korean language has special genderlect characteristics with honorific speech style realized in verb endings. In Korean the highest honorific speech style, ‘Habsho-che’ is used in official situation and men are more accustomed to it than women. When women have to use polite expressions they have to choose between the highest honorific style, ‘Habsho-che’ losing the female characteristics or the second highest honorific style ‘Haeyo-che’ keeping the female characteristics.

Keywords : English, genderlect, honorific speech style, Korean, Habsho-che, Haeyo-che

본 논문은 공주대학교 학술연구비(2012-1205)에 의해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 Hyo Kim(Kongju National University)

Tel: +82-41-850-8357 email: hhkim@kongju.ac.kr

Received September 21, 2015

Revised October 7,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1. 서론

R. Lakoff(1973)는 여성의 언어와 남성의 언어는 다르며, 사실 언어가 여성을 사회적으로 종속적인 존재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와 여성을 지시하는 언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한 종속적인 구조가 어떻게 강화되는가를 고찰하였으며,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정리한다[1].

- Hedges: sort of, kind of, I guess
- super-polite forms: would you please
- Tag Questions: isn't it, are you
- Emotional Emphasis: so, very, just, brilliant
- Empty adjectives: divine, adorable, cute
- Hypercorrect grammar and pronunciation
- Special terms such as precise color terms: mauve, magenta, aquamarine
- Use of interrogative intonation in predicative context:
- No use of strong expletives: damn, shit

여성의 언어는 직접적이지 않고 완곡한 표현, 무례하지 않고 공손한 표현을 선호하며 감성을 나타내는 부사, 형용사 그리고 상대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부가의문문의 사용 등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의미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과장된 형용사나 부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정확한 문법이나 발음을 구사하려고 노력하며 색깔을 표현하는 용어도 정확하고 섬세하다. 일반 평서문에서도 의문문의 어조를 사용하여 상대를 의식하며 욕설 등 강한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 여성언어의 특성으로 꼽힌다.

다음 예문(1)는 정서적으로 부드러운 단어를 선호하는 여성발화의 특성과 강하고 욕설이 자주 보이는 남성어의 특징을 보여준다.

- (1) a. Oh dear, you've put the peanut butter in the refrigerator again.
- b. Shit, you've put the peanut butter in the refrigerator again.

위의 (1a)예문은 여성의 표현으로 (1b)예문은 남성의

표현으로 쉽게 짐작이 간다. 즉, 두 개의 문장은 'Oh, dear'와 'Shit' 부분만 다른데 이 단어가 전체발화의 분위기를 다르게 하며 남성발화와 여성발화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여성발화의 특징은 여성이 사용하는 말 뿐 아니라 여성을 지시하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동안 여성 언어학자들이 이러한 성차별적인 언어를 찾아내어 이들을 중립적인 언어로 바꾸는 노력을 해왔다. 예를 들면, 여성형 접미사를 빼거나, 남성을 나타내는 명사인 man이 사람을 대표하는 경우를 찾아내어 중성적인 표현인 person으로 바꾸는 것 등이다.

- (2) a. stewardess -> flight attendant
- chairman -> chairperson
- policeman -> police officer

이러한 성별어 연구의 추세는 점차로 차별이 아닌 차이에 그 초점이 옮겨가게 된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학적 심리학적 차이에 따라 대화방식이 다르다는 주장을 하며 이러한 차이에 기인한 소통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R. Lakoff(1973)의 여성어의 특징들은 한국어도 대부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음운적 특징으로 상승어조를 사용하거나 높은 음조, 정확한 발음 구사, 간접적 표현이나 감정입음을 잘 하며 감성을 나타내는 부사나 형용사를 많이 사용하고 욕설을 삼가는 것 등은 한국어 여성발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간 이루어진 한국어의 여성발화의 특징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음운특징, 문법담화특징, 어휘특징의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음운특징으로는 경음사용, 'ㄹ' 첨가, 상승어조의 의문문, 표준발음 지향이라는 특징에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문법 담화특징으로는 대우법이 특이하며, 의문문, 청유문, 감탄문을 선호하며 애매하거나 협동적 대화를 선호하는 특징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또한 어휘특징으로는 축약형, 감탄사, 간투사, 부사를 선호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왔다[2].

본 논문은 영어와 한국어의 성별어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영어는 "Mrs. Doubtfire"영화의 대본을 한국어는 "올라라부부"의 대본을 분석하였다. 이 두 개의 영화와 드라마의 대본을 분석한 이유는 둘다 주인공의 성별이 바뀌면서 말이나 행동이 불일치하는 경우

긴장감이나 웃음이 발생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어가 일반적인 여성발화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어떤 발화상황에서 성별어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것이 공통적인지 개별언어의 특징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2. “Mrs. Doubtfire” 에 나타난 여성발화어

영화 “Mrs. Doubtfire”에서 이혼남인 다니엘은 자신의 아이들을 보기위해 여성가정부로 위장하게 된다. 그는 여성처럼 보이기 위해 여성발화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말하고자 노력한다. 이혼한 전 부인 미란다와의 전화통화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특히나 여성발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 보여야 했고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어서 전화면접에서 호감을 주게 된다. 그는 대화에서 여성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는 단어들인 *lovely*, *harsh*, *glorious* 등을 사용하며 여성처럼 부드러운 어조와 높은 음조로 말한다.

- (3) I took care of their *glorious* children.
- (4) I hope it's not too *harsh*.
- (5) *Lovely*, *dear*.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전형적인 여성의 부드러움과 자상함을 드러내어 미란다에게 신뢰감을 주게 되고 가정부로 채용이 된다. 영화의 전반부에서 여성가정부로 변장한 다니엘은 여성어의 전형적인 특징인 높은 어조와 자상하고 부드러운 단어, 여성전용의 감성적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는 등 여성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여 여성 가정부로서의 그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한다. 그는 집안일도 잘 하고 아이들도 잘 돌보아 미란다가의 신임을 얻게 된다. 점차 가족의 일원처럼 되어버린 그는 미란다가의 남자친구인 스투와 가족들의 모임에도 동석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스투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는데, 자신이 여성으로 변장한 것을 잊은 채 남성언어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을 하는 실수를 하게 되면서 영화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영화는 갈등구조로 접어들게 된다.

- (6) A big car .. is for compensating for smaller *genitals*.
- (7) I'm not what you think I am. *No shit*.
- (8) *It's a guy thing*.

위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니엘은 자신이 여성으로 변장한 것을 잊은 채 여성발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 즉, 성적인 표현(*genitals*)이나 욕설(*shit*), 남성들만의 간단하고 통명스런 표현(*It's a guy thing*)으로 말하게 된다. 결국 여성으로서의 그의 모습과 남성으로서의 말하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게 되고 이러한 말을 듣고 스투는 경악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긴장이 유발된다. 이때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그가 변장한 것이 발각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에 긴장하게 되고 여자모습을 하고 남자처럼 말하는 그를 보고 폭소를 터트리게도 된다. 결국 영화는 그가 변장을 한 미란다가의 전남편임이 드러나게 되는 과격으로 연결되게 된다.

3. “올라라부부” 에 나타난 여성발화어

한국의 tv 드라마 “올라라부부”는 교통사고를 당한 부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몸과 영혼이 일시적으로 바뀐다는 다소 엉뚱한 상황이 설정된다. 남편의 영혼은 부인의 몸에 들어가고 부인의 영혼은 남편의 몸에 들어간다는 실제 삶에서는 불가능한 설정인데, 이러한 설정이 드라마를 코믹하게 이끌어 나가면서 이혼위기에 있었던 부부가 상대의 역할을 하면서 그 입장이 되어보고 이해하게 되어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제자리를 찾을 것 뿐 아니라 부부도 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이다. 각각 상대방의 몸속에 들어간 남편과 부인은 그 몸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남편의 몸속에 있는 부인은 전형적인 가정주부였던 본인의 역할이 아닌 남편의 직장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고생을 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언어사용에 있어서 경어법 중 최고 높임단계인 ‘합쇼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 아래 예문들을 보자:

- (9) 부인: 미국에서 오신 단체손님 외에 특별한 보고 사항 없습니다.
(어색한 느낌을 만회하고자 다시 말한다)

미국에서 오신 단체손님 외에 특별한 보고사항 없습니다.

사장, 임원들: (그를 이상하게 쳐다본다)

(9)에서 부인은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임원회의에 들어간다. 준비된 보고사항을 읽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도 평소와 사용하던 경어법의 아주높임이 익숙한 어투가 아니라 잘 하지 못해 다시 하게 되며 그런 후에도 무언가 어색한 느낌 때문에 사장과 임원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게 된다. 이것은 부인이 회사조직내의 격식을 갖춘 언어사용에 익숙하지 않고 특히 사장과 임원들에게 보고하는 상황에 맞는 경어법의 가장높임 단계인 ‘합쇼체’가 어색했기 때문이다.

(10) 직장동료1: 이제 그 말투도 좀 조심하세요. ...
그러니까 직원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지배인님 이상해 지셨다고..

남편의 모습을 한 채 계속 여성발화를 하는 그를 보고 직장동료는 그의 어투를 지적한다. 주로 여성어의 특징인 어휘와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부인의 몸을 한 남편도 웃을 입거나 걷을 때 등 다소 공한 여성적 행동을 하지 못하면서 드라마는 코믹한 요소가 증가된다.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부인의 모습으로 한 채 말소리가 지나치게 크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격한 표현을 하는 등 여성발화의 특징에 어긋나는 발화를 하는 경우 시청자는 폭소하고 상황이 발각될까 긴장하게 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이 있는데, 남편은 부인의 몸을 하고 응시한 채용면접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아 면접관들을 놀라게 한다. 그가 면접 내용적인 면에서도 탁월했지만 특히 면접할 때 여성지원자들은 익숙하지 않은 ‘합쇼체’로 능숙하게 잘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11) 남편: 네. 손님들이 체크아웃을 하고 나면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손님이 쓴 흔적을 말끔하게 치우고 아무도 쓰지 않은 방처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면접관: 네, 알겠습니다. 나가서 기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남편: 네, 잘 부탁드립니다.

(면접관을 놀라는 모습이다)

‘올라라부부’에서는 여성발화의 일반적인 특징에 반대되는 큰소리나 욕설 등이 여성발화에 등장할 경우 웃음이나 긴장감이 조성되었다. 반대로 남성의 모습을 하고 여성발화를하는 경우에도 웃음과 긴장감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별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고정된 특징에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 긴장감과 웃음이 발생하는 것은 영어나 한국어가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올라라부부’에서 가장 긴장감이 높게 만들어지는 부분은 여성이 경어법의 아주높임 단계인 ‘합쇼체’에 약한 경우였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발화는 공손한 발화로 인식되어 지는데 반하는 이러한 자료가 한국어의 개별적 특성인지를 밝혀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어의 공손어법 중 경어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4. 한국어와 영어 공손표현과 성별어

공손표현과 관련하여 여성들은 공손표현에 익숙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며 영어와 한국어는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다음은 R. Lakoff(1973:56)의 공손표현의 단계를 보여주는 예문들이며 이 예문들을 통해 그는 공손표현의 특징들이 여성발화의 특징들과 같으며 따라서 여성어는 남성어보다 더 공손하다고 설명한다.

- (12) a. Close the door.
- b. Please close the door.
- c. Will you close the door?
- d. Will you please close the door?
- e. Won't you close the door?

R. Lakoff(1973:56)에 따르면 공손한 발화는 ‘결정권을 남겨둔다’거나 ‘자신의 견해, 관점, 요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위 예문들을 보면, a 부터 e에 이르는 단계로 공손한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 (12a)는 단순한 명령문으로서 청자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가장 공

손하지 못한 표현이다. (12b)는 단순한 요청이면서 please가 공손함을 더해준다. (12c)는 표면적으로도 강요하는 명령문이 아니며 청자의 호의에 의존해서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의문문의 형태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의향 여부에 따른 결정권을 주는 효과를 갖게 되어 좀 더 공손하게 된다. (12d)는 please 라는 표현이 공손한 정도를 높게 되는데 이러한 명령이 아닌 요청을 나타내는 언어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좀 더 공손해진다. (12e)는 부정의문문의 형태를 이용하여 청자가 요청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청자는 이 요청을 받고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속에 있으므로 거절하는데 따르는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12e)는 가장 공손한 표현이 된다. 적어도 위 (12)예문의 요청과 관련하여 의문문이나 부가의문문, 부정의문문, 불변화사 (particle)등이 복합될수록 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데 이는 강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공손한 표현이 되며 여성의 말하는 강한 진술을 피하도록 고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은 여성어적인 특성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어 공손표현에 있어서도 대체로 여성들은 공손한 표현을 선호하는 것이 민현식(1995, 1996), 김선희(1991)에서 확인되었다. 단지 한국어의 특이한 점은 공손표현이 화용론적인 고려사항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어법이라는 높임단계로 형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4.1 한국어의 공손표현과 경어법

한국어는 공손표현이 잘 발달된 언어이다. 공손표현이란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긍정적 내용의 발화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언어적 장치들”이라고 정의되며[3] 한국어의 공손은 경어법체계가 있기 때문에 경어법을 바탕으로 공손표현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경어법만으로 공손표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경어법 요소에 기타 공손관련 요소들이 더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공손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경어법이 실현된 상태에서 공손관련 요소들이 더해지면 공손의 정도를 증가시킨다.

한국어의 경어법은 어떤 인물을 얼마나 또는 어떻게 높여 대우하거나 낮추어 대우할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문법적, 어휘적 체계라 할 수 있다. 경어법은 높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경어법, 객체 경어법, 상대 경어법으로 나뉜다. 국어 경어법의 연구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된 문제는 상대 경어법의 말 단계 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쇼체’, ‘해요체’, ‘하오체’, ‘하계체’, ‘해체(반말체)’, ‘해라체’의 6등급 체계를 사용하는데, ‘격식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격식체로 ‘아주 높임(합쇼체)’, ‘예사 높임(하오체)’, ‘예사 낮춤(하계체)’, ‘아주 낮춤(해라체)’을, 비격식체로 ‘두루 높임(해요체)’, ‘두루 낮춤(해체, 반말체)’을 두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어법 연구에서 설정한 상대 경어법의 등급 체계는 실제 화자들의 경어법 사용의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종결 어미 형식의 목록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운 ‘추상적 체계’이다. 다음은 이정복의 분류이다[4].

Table 1. Hearer Honorification: Abstract Hierachy of Standard Korean

Level	Honorific style
Level 6	Hasipsiyo-che
Level 5	Haeyo-che
Level 4	Hao-che
Level 3	Hage-che
Level 2	Hae-che
Level 1	Haera-che

위 표 1의 말 단계 구분은 화자들의 다양한 세대나 계층을 반영할 수 없으며, 현재 쓰이고 있는 청자 경어법 형식들의 상대적 높임 기능 정도를 고려하여 추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는 구체적 언어사용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대화 참여자들의 경어법 사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높임의 정도를 제시한 표1의 경어법 단계는 격식성의 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부가적으로 구별하여 제시한 아래 표2의 국립국어원(2005)의 말 단계가 좀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Table 1의 이정복의 분류에서 Level 6는 “하십시오체”로 되어있으나 이것은 Table2의 국립국어원의 분류의 “합쇼체”와 같다.

Table 2. Counterpart Honorification

Honorific level		Formal	Informal	Honorific level
honorific	highest	Habsho-che	Haeyo-che	overall high
	high	Hao-che		
non-hon orific	low	Hage-che	Hae-che	overall low
	lowest	Haera-che		

국립국어원의 높임말에 대한 구분과 설명을 보면, 아주높임 단계인 ‘합쇼체’는 처음 만난 사람, 손님과 같이 예의를 갖추어 말해야 하는 사람에게 자주 사용되며, 회의나 연설, 발표, 토론, 보고 등과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로 상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5].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아주높임과 예사높임 상황에 두루 쓰이고 있으며, 격식체는 공공장소나 직장 등의 공식적인 이야기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다. 비격식체는 일상생활이나 개인적인 이야기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주관적이고 부드러운 표현이다. 특히 격식체인 ‘합쇼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 대해 공손한 태도를 보여 주므로 비격식체인 ‘해요체’에 비해 높임의 정도가 약간 더 높게 느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합쇼체’와 ‘해요체’가 격식성의 여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정도에 있어서도 ‘합쇼체’가 ‘해요체’보다 더 높다는 것이다.

4.2 한국어의 공손표현과 여성발화

한국어 경어법의 아주높임 단계인 ‘합쇼체’가 가장 높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들이 ‘합쇼체’보다 ‘해요체’를 선호한다는 것이 김선희(1991), 임홍빈(1993), 민현식(1996)에서 나타났으며, 강현석(2011)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합쇼체’는 남성 사용 비율이 여성보다 2.6배 더 높다고 한다[6].

R. Lakoff는 영어의 경우 최고의 공손표현은 여성어의 특성과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한국어에는 경어법이 있어서 여성들이 최고단계의 공손표현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손표현을 단순히 높임의 단계측면에서 보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긍정적 내용의 발화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언어적 장치들”이라는 허상희(2013)의 정의를 고려해 보면 여성의 발화가 단정적인 표현을 피함으로서 공손성의 정도를 높이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된다고 볼 때 한국어 여성 발화가 ‘합쇼체’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격식체인 ‘합쇼체’는 공공장소나 직장 등의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므로 비록 ‘해요체’보다 높임정도가 높다 하더라도 여성어가 갖는 특징들 중 부드러움, 단정적이지 않음, 완곡한 표현이라는 특징과 충돌하게 된다. 이때 여성화자는 비격식체인 ‘해요체’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높임을 실현하되 단정적인 표현으로 여성발화의 특징과 충돌하

는 ‘합쇼체’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어의 경어법 중 ‘합쇼체’는 주로 공식적인 상황 특히 매스컴에서 아나운서들이 사용하는 화법이라는 측면을 들어 공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여성은 공손성과 비격식성 둘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비격식성을 선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최고의 공손성을 잃게 된다. 그러나 사실 공손성은 단순히 종결어미에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조나 언어적 부가표현 등의 다양한 화용론적 기제들을 통해 구현될 수 있으므로 한국 여성들이 ‘해요체’를 선택함으로써 잃게 되는 것은 격식성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면 격식성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여성이 조직의 한 일원으로 발화한다면 공손의 정도와 격식성이 모두 최고로 만족되는 형태 즉, 아주높임의 ‘합쇼체’를 사용하면서 여성 발화의 특징인 부드러움, 완곡함 등의 특징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이 면접시험장등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합쇼체’를 사용하여 가장높임 단계의 경어법을 구사하고 여성성을 중화시키고 격식성을 우선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경우가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발화가 갖는 특성과 그 특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만들어지는 긴장감과 웃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성별어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영어와 한국어의 여성 발화는 어휘선택이나 억양등 대부분의 성별어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남성이 여장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의 말을 하는 모순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Mrs. Doubtfire”에서는 어휘사용 측면에서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올라라부부”에서는 어휘사용 뿐 아니라 경어법 즉, ‘합쇼체’의 사용에 익숙치 않을 때 긴장감이 발생한다는 것에 주목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손한 표현은 여성발화의 특성이지만 한국어에는 공손표현과 관련하여 경어법이라는 말단계가 존재하며 한국어성은 아주높임 단계의 경어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아주높임 단계인 ‘합쇼체’는 격식성이 존재하므로 여성의 발화가 갖는 특성들과 격식성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화자는 공손한 표현을 할 때 가장

높임 단계의 ‘합쇼체’를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공손의 형식적 정도는 다소 떨어지는 ‘해요체’를 구사하면서 여성의 발화특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여성들은 자신의 입장과 맞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가정 주부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는 여성성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지만 직장에서나 발표 등의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여성발화의 특성을 포기하고 격식성을 선택하여 아주높임 단계인 ‘합쇼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로서 영어나 한국어의 성별어 특히 여성 발화는 일반적으로 공손한 표현들을 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영어에서는 최고단계의 공손표현이 여성발화와 일맥상통하는 반면 경어법이 발달된 한국어에서는 여성화자가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한국의 여성은 공손표현을 할 때 아주높임 단계의 ‘합쇼체’를 선택함으로써 격식성과 최고의 공손도를 만족시키고 여성발화의 특성을 포기할 것인지를 선택과 다른 하나는 여성발화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격식성을 포기하고 따라서 낮은 정도의 공손도를 만족시키는 ‘해요체’를 선택할 것인지를 선택지가 남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 ‘합쇼체’를 포기하는 대신에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공손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격식성은 여전히 잃게 되는 선택이다. 이러한 특성은 공손표현과 관련하여 보편적으로 여성발화가 공손하다는 특성과 더불어 한국어가 개별언어로서 갖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김 현 효(Hyun Hyo Kim)

[정회원]



- 1966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1994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학박사)
- 1995년 9월 ~ 2005년 2월 : 천안 공업대학 교양학부 교수
- 2005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관심분야>

영어학, 의미론, 화용론, 특수목적영어교육

References

- [1] Lakoff, R., "Language and a Woman's Place," *Language in Society*, Vol. 2, No. 1, pp. 45-80, 1973.
DOI: <http://dx.doi.org/10.1017/S0047404500000051>
- [2] Park, S.R., "A Study on Diachronic Change of male and female Language in Korean,"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pp.20-21, 2004.
- [3] Hur, S.H., *A Pragmatic Study on Expression of Politeness in Korean*, Series of Studies on Korean Honorifics 2, pp. 49-248, Sotong, 2012.
- [4] Lee, J, *Functions and Principles of Korean Honorifics*, Series of Studies on Korean Honorifics 3, p.63, Sotong, 2012.
- [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Korean Grammar for Foreigners I*, Seri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 pp. 222, Communication Books Inc., 2005.
- [6] Kang, H.S, "A Quantitative Sociolinguistic Study of Variation between Haeyo and Hapsyo Styles with a Focus on the Gender Factor,"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Vol. 19, no. 2, p. 12, 2011.